

한국의 결혼식은 크게 구식과 신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식은 옛날 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방식으로 신부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머리에 족두리를 씁니다. 이때 입는 한복을 특별히 활옷이라고 말합니다. 활옷은 소매가 길고 소매끝에 여러가지 수가 놓아져 있다. 족두리는 작은 모자와 비슷한 것으로 구슬과 반짝이는 것들로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신랑도 한복을 입지만 신부만큼 화려하지는 않다. 신식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방법으로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다. 신식결혼식은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리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신식결혼식을 합니다.

요새 한국의 결혼식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수 때문입니다. 일생에 한번 밖에 없는 결혼식이 혼수때문에 잘되지 않는 것을 보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서 전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